

페드코, 파키스탄 석탄광권 확보

25억6000만톤 매장 4광구 지분 50% ... 4월 시추 돌입 2011년 생산

국내기업이 파키스탄에서 다량의 석탄이 매장돼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석탄 탐사광구의 광권을 확보했다.

3월22일 자원개발기업 페드코(Pedco)는 UAE의 빈딘그룹과 함께 파키스탄 타르지역 석탄광구 가운데 4광구를 확보하는 계약을 3월19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빈딘그룹은 파키스탄에서 100만호 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으로 페드코와 빈딘그룹은 25억6000만톤의 석탄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광구의 지분을 50%씩 갖게 된다.

계약 석탄광구가 존재하는 타르지역은 파키스탄 최대도시 카라치시(市)에서 동쪽으로 410km 떨어진 지역으로, 광구면적이 80km² 규모이며 페드코는 4월부터 정밀 시추를 시작해 2010년 광산을 건설한 뒤 2011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파키스탄 정부가 광구 인근에 이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을 원료로 하는 발전량 50만kW 규모의 발전소 2기를 건설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페드코는 발전소 건설의 타당성 검토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페드코와 빈딘그룹은 싱가포르에 파키스탄의 석탄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석탄 시추와 생산·운영·판매는 페드코가 전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23>